

두산아트센터

DOOSAN
ART CENTER

2020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rs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팬레터	2019.11.7 - 2.2	Fan Letter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5.29 - 8.23	bare the musical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9.19 - 11.8	THE HISTORY BOYS
뮤지컬 HOPE: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11.19 - 21.2.7	HOPE: THE UNREAD BOOK AND LIFE

Space111

DOOSAN Art LAB		Space111
연극 앵커	1.30 - 2.1	The Anchor
연극 양질의 단백질	2.6 - 2.8	Quality Protein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2.13 - 2.15	Existence, Viability and Egoism
연극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2.20 - 2.22	Do you remember my death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FOOD

연극 1인용 식탁	5.6 - 5.23	Table for One
연극 궁극의 맛	6.2 - 6.20	GOKUDO MESHI
연극 식사(食事)	6.30 - 7.18	The Way of Eating

DAC Artist

판소리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9.16 - 9.25	In a Dream - I, A Hitchhiker with a Reason
연극 꿈이 아닌 연극	10.13 - 10.31	Not a Dream Play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구자혜 신작	11.10 - 11.28	New Work by Khoo Jahye
-----------	---------------	------------------------

공동기획

연극 문밖에서	7.25 - 8.1	Outside the door
연극 마른 대지	8.8 - 8.23	Dry Land
연극 크리스천스	12.5 - 12.26	Christians

두산갤러리 서울		DOOSAN Gallery Seoul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1.15 - 2.15	DOOSAN Curator Workshop Exhibition
최윤 개인전	5.6 - 5.30	Choi Yun
박경률 개인전	6.10 - 7.11	Park Kyung Ryul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7.22 - 8.19	Exhibition Selected from the Open Call: Curatorial Proposals
김주원 개인전	9.9 - 10.21	Kim Juwon
우정수 개인전	11.11 - 12.16	Woo Jeongsu

두산갤러리 뉴욕		DOOSAN Gallery New York
두산아트랩 뉴욕 2020	1.16 - 2.15	DOOSAN Art LAB New York 2020
우정수 개인전	3.5 - 3.12	Woo Jeongsu
박경률 개인전	9.10 - 10.17	Park Kyung Ryul
최윤 개인전	11.5 - 12.17	Choi Yun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s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 - 12.31	DOOSAN Curator Workshop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6.1 - 7.27	DOOSAN Humanities Theater 2020: FOOD
두산아트스쿨: 미술	10.8 - 11.5	DOOSAN Art School: Fine Arts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7.4 - 12.5	DOOSAN Art School: Workshop
두산아트센터 투어	2.10 / 8.20 / 10.22	DAC Tour

공모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Open Call
공연		Performing Arts
공동기획	5.11 - 6.10	Space111 Joint Project
두산아트랩	6.15 - 7.15	DOOSAN Art LAB

전시

전시		Fine Arts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1 - 2.28	DOOSAN Curator Workshop
두산레시던시 뉴욕 입주작가	12.1 - 12.18	DOOSAN Residency New York

공모 안내: 공연

두산아트센터는 보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연, 전시 분야에서 다양한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Space111 공동기획

공모기간 2020년 5월 11일-2020년 6월 10일

공모대상 두산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Space111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선정작품 1편

작품형식 자격·장르 제한 없음, 재공연 작품 가능

공연기간 2021년 12월

지원내용

- 1) 공연제작비(작품당 1천만 원)
- 2) 공연장(Space111), 부대장비
- 3) 하우스 운영 인력

☆ 선정단체 부담: 제작/홍보마케팅/티켓/공연 운영/공연자 보험 가입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발표(2020년 7월)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작품 소개 자료

두산아트랩

공모기간 2020년 6월 15일-2020년 7월 15일

공모대상 만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선정인원 7개팀(개인 또는 단체)

발표형식 장르 제한 없음,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가능

발표기간 2021년 1-3월

지원내용

- 1) 작품개발비(팀당 7백만 원)
- 2) 발표 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3) 작품 개발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4)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5) 홍보마케팅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발표(2020년 8월)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작품 소개 자료

Open Call: Performing Arts

DAC Artist

공모기간 2021년 1월 4일-2021년 1월 27일

공모대상 만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학교작품 외 2개 작품 이상 창작활동 경험자

선정인원 2명

작품형식 장르 제한 없음

공연기간 2022년 9-10월

지원내용

- 1) 공연제작비(1편, 최대 1억 원)
- 2)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 3)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 4) 홍보마케팅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발표(2021년 2월)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작업계획서, 포트폴리오

모든 공모는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apply@doosanartcenter.com

공모 안내: 전시

두산아트센터는 보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공연, 전시 분야에서 다양한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공모기간 2020년 1월 1일-2020년 2월 28일

선정인원 3명

공모대상 만 40세 이하, 한국 국적, 최소 2년 이상 전시기획이나 진행 참여

지원내용

- 1)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참여(2020년 3월-12월)
- 비평적 글쓰기, 전시기획 방법론, 큐레이팅 워크샵 등
- 2) 공동기획 전시(두산갤러리 서울, 2021년 1월-2월)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및 전시기획안 프리젠테이션 → 발표(2020년 3월)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시기획안(자유주제, 장르 제한 없음)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기간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18일

선정인원 2명

공모대상 만 40세 이하, 한국 국적, 개인전 2회 이상

지원내용

- 1)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업실 1실, 아파트 1실, 항공비 3백만 원, 생활비 9백만 원)
- 2) 두산갤러리 서울 개인전(전시비 1천 8백만 원)
- 3) 두산갤러리 뉴욕 개인전(전시비 1천 8백만 원)
- 4)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입주/전시기간

두산레지던시: 2021년 7월-12월(6개월)

서울전시: 2021년 1월-6월 중 약 1개월

뉴욕전시: 입주 기간 중 약 1개월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발표(2021년 2월)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작업계획서, 포트폴리오

Open Call: Fine Arts

두산갤러리 전시기획

공모기간 2021년 2월 8일-2021년 2월 18일 ☆ 2년마다 진행

선정인원 1명

공모대상 만 19세 이상, 한국 국적,

최근 3년간 단독 전시기획 경험 2회 이상, 소속기관 제한 없음

지원내용

두산갤러리 서울 기획전(2022년 7월-8월)

(전시비 1천 6백만 원, 기획비 2백만 원)

선정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 발표(2021년 3월)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전시기획서, 포트폴리오

모든 공모는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갤러리 서울 02-708-5050
doosangallery.seoul@doosan.com

예매 방법
 -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매
 - 공연 관람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doosanartcenter.com)
 - 예매시간은 공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servations Method
 - Log in to the homepage of DOOSAN ART CENTER and purchase tickets
 - Available up to 5:00 p.m. the day prior to the performance.

티켓 수령
 - 공연 당일, 티켓박스에서 티켓 수령 시
 예매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예매내역서 또는 예매 문자 확인

Ticket Pickup
 - At the ticket box on the day of the performance to receive tickets, please present identification(identity card, driver's license), a reservation statement, or a text message reservation confirmation.

환불 및 변경
 - 환불은 공연 시작 1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
 - 환불 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공연업 규정에 따라 적용
 - 티켓은 유가증권이므로 분실 시 환불 불가
 - 예매 변경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예매

Refunds and Changes
 - Ticket refunds and changes are available up to 5:00 p.m. day prior to the performance.
 - The ticket refund fee is subject to the performance industry provisions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Notification No. 2014-4).
 - A ticket is a negotiable security and cannot be refunded in the event of loss.
 - To modify a reservation, please cancel the reservation and then re-reserve it.

티켓박스 오픈
 - 연강홀, Space111
 화-일요일, 공연 시작 1시간 전
 ☆ 오픈시간은 공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Ticket Box Open
 - Yonkang Hall Tuesday-Sunday, 1 hour prior to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Space111 Tuesday-Sunday, 1 hour prior to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 Tim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두산아트센터 회원안내
가입 홈페이지 가입(무료)
혜택 - 예매 수수료 무료
 - 공연 할인(5-25%, 공연에 따라 다름)
 - 프로그램 정보 및 프로모션 제공(수신 동의자에 한함)

DOOSAN ART CENTER Membership Join
 - You may subscribe through DOOSAN ART CENTER homepage
 - Subscription is free
Benefits
 - No booking fee
 - Discount on show ticket(5-25% depending on the show)
 - Direct mails concerning information on events(only to those agreeing to receive them)

우수 회원: 다트(D-Art) 클럽 혜택
조건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구매, 연간 4공연 이상 유료 예매자
추가 혜택
 - 제작공연 프레스콜, 연습실 초대
 - 다트클럽 단독 이벤트
 - 두산아트센터 아트상품 증정(매년 1회)
 ☆ 2020년 다트클럽 기준

D-Art Club Membership Who are eligible
 - Those who have booked for four events a year through DOOSAN ART CENTER homepage
Additional benefits
 - Press call to production performance, and invitation to the rehearsal
 - D-Art Club exclusive event
 - A free gift of an art product from DOOSAN ART CENTER (once a year)

연강홀 대관

대관기간 2021년 4월-2022년 2월

공모대상 자격·장르 제한 없음,
재공연 작품 가능

신청일정 2020년 4월 1일-4월 27일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문의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apply@doosanartcenter.com

Annual Yonkang Hall Rental Competition

Venue availability

- April 2021-February 2022

Eligible applicants

- No restrictions on eligibility / genres;
re-runs are eligible

Application period

- 2020.4.1-4.27

☆ Check the homepage for details on the application period and method

Application method

-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from DOOSAN ART CENTER website, and submit the filled form via email

Enquiry

- apply@doosanartcenter.com



<p>두산아트센터 - 동아연극상 '특별상' 연극 철가방추적작전 - 한국극예술학회 선정, '올해의 작품상' 연극부문 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9 공연 베스트 7' - 동아연극상 '연출상' (신유청)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 편 -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이연주)</p>	<p>2019</p>	<p>DOOSAN ART CENTER - Received "Special Prize" at the Dong-A Theater Award Play Tracking down the Steel container - Selected as "Best Play of 2019" by The Learned Society of Korean Drama and Theatre Play Nokcheon Has Fields of Shit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19"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 - Received "Best Director"(Shin Yucheong) at the Dong-A Theater Award Play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rtist - Received "Best New Director" (Lee Yeonjoo) at the Dong-A Theater Award</p>
<p>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p>	<p>2018</p>	<p>Play The Lonely, The Tired, The Sad - Selected as "Top 3 Plays of 2018"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Korea</p>
<p>연극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손상규) 연극 썬샤인의 전사들 - 차범석희곡상 장막 희곡 부문(김은성)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6 공연 베스트 7'</p>	<p>2016</p>	<p>Play My Eyes Went Dark - Received "Best New Actor" (Son Sangkyu) at the Dong-A Theater Award Play Sunshine Warriors - Received "Full-Length Best Play" (Kim Eunsung) at the Cha Bumseok Play Award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16"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p>
<p>연극 비포 애프터 -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출상'(이경성) -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성수연) -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성수연)</p>	<p>2015</p>	<p>Play Before After - Received "Best New Director" (Lee Kyungsung)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New Actor" (Sung Sooyeon)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New Actor" (Sung Sooyeon) at the Dong-A Theater Award</p>

<p>연극 비포 애프터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5 공연 베스트 7'</p>	<p>2015</p>	<p>Play Before After - Selected as "Top 3 Plays of 2015"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Korea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15"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p>
<p>연극 죽음과 소녀 -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박지혜) 판소리 단편선_주요섭 추물/살인 -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이자람) -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김소진) - 창작극악극대상 '극본상'(이자람)</p>	<p>2014</p>	<p>Play Death and the Maiden - Received "Best New Director" (Park Jihye) at the Dong-A Theater Award A Pansori Short Story_ Joo Yo-seop, An Ugly Person/Murder - Received "Best New Concept Play" (Lee Jaram) at the Dong-A Theater Award - Received "Best New Actress" (Kim Sojin) at the Dong-A Theater Award - Received "Best Script" (Lee Jaram) at the Creative Traditional Musical Drama Awards</p>
<p>두산아트센터 - 대한민국연극대상 '예술문화후원상' -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콘텐츠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공연장·갤러리 부문' 선정 연극 가모메 -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타다 준노스케), '시청각디자인상'(박상봉)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지현준) -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지현준)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p>	<p>2013</p>	<p>DOOSAN ART CENTER - Received "Prize for Culture and Arts Patronage"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Content" at the Korea Digital Management Innovation Awards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er's Award) - Selected as "Best Theatre/Gallery" at the Customer Quality Satisfaction Awards hosted by Chosun Ilbo Play Karumegi - Received "Best Play", "Best Director"(Junnosuke Tada) and "Best Audiovisual Design" (Park Sangbong) at the Dong-A Theater Award Play I Am My Own Wife - Received "Best New Actor" (Ji Hyunjun)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New Actor" (Ji Hyunjun) at the Dong-A Theater Award - Selected as "Top 3 Plays of 2012"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Korea</p>

연극 목란언니 2012
 -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 동아연극상 '희곡상'(김은성),
 '유인촌신인연기상'(정운선)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2 공연 베스트 7'
뮤지컬 모비딕
 -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어워드
 '혁신상', '음악상'
 - 더뮤지컬어워즈 '남우신인상'(지현준)
두산아트센터
 - 메세나 대상 '창의상'
뮤지컬 모비딕
 -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여신동)
무용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 서울아트마켓 선정 '2011 PAMS
 CHOICE'

Play Sister Mokran
 - Received "Best Play"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Play" (Kim
 Eunsung) and "Best New Actress"
 (Jung Woonsun) at the Dong-A
 Theater Award
 - Selected as "Top 3 Plays of 2012"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Korea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12"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
Musical Moby Dick
 - Received "Best Innovation" and
 "Best Original Score" at the
 Yegreen Award
 - Received "Best New Actor"
 (Ji Hyunjun) at the Musical
 Awards
DOOSAN ART CENTER
 - Received "Best Creativity" at the
 Mecenat Awards
Musical Moby Dick
 - Received "Best Scenic Design"
 (Yeo Shindong) at the 2011 Korea
 Musical Awards
Dance Dancing Grandmother
 - Selected as "2011 PAMS
 CHOICE" by Seoul Art Market

두산아트센터 2011
 - 대한민국연극대상 '특별상'
 - 한국프로듀서협회 선정 '올해의 프로듀서상'
연극 잠 못드는 밤은 없다
 -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박완규)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0 공연 베스트 7'
DOOSAN ART CENTER
 - Received "Special Prize" at the
 2010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Producer of the Year"
 by the Korea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oducers
Play No Sleepless Night
 - Received "Best Play"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New Actor"
 (Park Wankyuu) at the Dong-A
 Theater Award
 - Selected as "Top 3 Plays of 2010"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Korea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10"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

연극 소설가 구보씨의 1일 2011
 - 동아연극상 '무대미술·기술상'(여신동)
음악극 천변살롱
 -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선정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우수공연'
 - 서울아트마켓 선정 '2010 PAMS
 CHOICE'

판소리 사천가 2010
 -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통예술 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폴란드 콘탁(Kontakt) 국제연극제
 '최고 배우상'(이자람)

연극 하얀앵두 2009
 -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 동아연극상 '희곡상'(배삼식),
 '유인촌신인연기상'(백익남)
 - 조선일보, 평론가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09 공연 베스트 7'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선정 '창작팩토리
 우수작품 재공연'
연극 코펜하겐
 -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09 공연 베스트 7'
판소리 사천가
 - 서울아트마켓 선정 '2009 PAMS
 CHOICE'

**Play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 Received "Best Stage Art/
 Technology" (Yeo Shindong) at
 the Dong-A Theater Award
Music Drama Riverside Salon
 - Selected as "Best Performance
 as a Special Program for Local
 Culture & Art Centers" by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 Selected as "2010 PAMS
 CHOICE" by Seoul Art Market

Pansori Sacheon-ga
 - Selected as "Prize for Today's
 Young Artist" in the category
 of Korean traditional ar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Received "Best Actress"
 (Lee Jaram) at the Poland Kontakt
 International Play Festival

Play White Cherry
 - Received "Best Play" at the Korea
 Theater Awards
 - Received "Best Play" (Bae
 Samsik) and "Best New Actor"
 (Baek Iknam) at the Dong-A
 Theater Award
 - Selected as "Top 3 Plays of
 2009" by Chosun Ilbo and critics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09"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
 - Selected as "Best Work of Art
 from Creation Factory" by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Play Copenhagen
 - Selected as "Top 7 Performances
 of 2009" by the monthly
 magazine Korea Theatre Review
Pansori Sacheon-ga
 - Selected as "2009 PAMS
 CHOICE" by Seoul Art Market

DAC Artist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DAC Artist

We discover and select young artists and support for their creative activities.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합니다.

DOOSAN Curator Workshop

DOOSAN Curator Workshop is designed to guide and support young Korean curators and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두산아트랩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OOSAN Art LAB

We supports young artists under 40 to enable their experimentation endeavors. Also we research program for developing new works.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쓴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만들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DOOSAN Artist Award

Established in 2010 to honor the intention and philosophy of DOOSAN's Founder Park Toopyung who devoted himself to cultivating talent, this award recognizes outstanding young artists under age 40 with extraordinary practices in the field of performing and visual arts.

두산레지던시 뉴욕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6개월 동안 뉴욕 첼시 지역에 위치한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합니다.

DOOSAN Residency New York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vides young promising artists working in Korea with private studio space and housing for six months in the Chelsea Art District in New York City.

DAC Artist

DAC Artist는 공연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2022년부터 적용)

DAC Artist 프로그램 신작 제작(1편)
공연제작비(최대 1억원), 홍보마케팅 지원
공연장(Space111) 4주, 연습실 6주 지원

☆ 공모기간: 2021.1.4-1.27

지원 아티스트

김수정 극작가·연출
〈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 극작가·연출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승희 국악창작자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양손프로젝트 박지혜 연출
양조아 배우
손상규 배우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went 다크〉, 〈폭스파인더〉,
〈죽음과 소녀〉

이경성 연출
〈워킹 홀리데이〉, 〈비포 애프터〉

DAC Artist

DAC Artist is a program dedicated to discovering and selecting young artists and supporting their creative endeavors.

Support

Production for a new work for DAC Artist program.
Performance production cost(max 100,000,000KRW), and PR and marketing funding. 4 weeks use of theater(Space111) and 6 weeks use of rehearsal space.

Artists

Kim Sujung Playwright/Director
〈EGALIA'S DAUGHTERS: A Satire of the Sexes〉

Yoon Sungho Playwright/Director
〈The Lonely, The Tired, The Sad〉

Lee Seunghee Pansori Artist
〈In a Dream〉

Yangson Project Park Jihye Director
Yang JoA Actress
Son Sangkyu Actor
Yang Jongook Actor
〈My Eyes Went Dark〉, 〈Foxfinder〉,
〈Death and the Maiden〉

Lee Kyungsung Director
〈Walking Holiday〉, 〈Before After〉

양태석 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김은성 극작가
〈뺨〉

여신동 아트디렉터
〈마이 아이즈 went 다크〉, 〈폭스파인더〉,
〈나는 나의 아내다〉, 〈배수의 고도〉,
〈목란언니〉, 〈뺨〉, 〈모비딕〉, 〈디 오써〉

성기웅 작가·연출
〈가모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분우리 절문날〉

이자람 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_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서재형 연출·한아름 작가
〈청춘, 18대 1〉

Yang Taeseok Drum Artist
〈Drum Quest〉

Kim Eunsung Playwright
〈Mudflat〉

Yeo Shindong Art Director
〈My Eyes Went Dark〉, 〈Foxfinder〉,
〈I am my own wife〉, 〈Haisui no Koto〉,
〈Sister Mokran〉, 〈Mudflat〉,
〈Moby Dick〉, 〈The Author〉

Sung Kiwoong Playwright/Director
〈Karumegi〉,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Our Joyful Young Days〉

Lee Jaram Pansori Artist
〈A Pansori Short Story_Joo Yo-seop, An Ugly Person/Murder〉, 〈Sacheon-ga〉

Seo Jaehyung Director
Han Ahreum Playwright
〈Youth, 18:1〉

두산아트랩: 공연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발표 장소(Space111/연습실), 부대 장비, 소정의 제작비

☆ 공모기간: 2020.6.15~7.15

DOOSAN Art LAB: Performing Arts

DOOSAN Art LAB provides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of works of art in various forms in order to discover creative and experimental works that have great potential.

Support

Performance venue, equipment, and a fixed production cost are provided

지원 아티스트

Artists

서정완 <앵커> 김연주 <양질의 단백질> 글과무대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추태영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2020	Seo jeongWan <The Anchor> Kim Yeonjoo <Quality Protein> geulmoo <Existence, Viability and Egoism> Choo Taeyoung <Do you remember my death>
김명환 <하이타이> 박현지 <폐지의 역사> 김정 박희은 최희진 <기록을 찾아서: 연기를 해가지 교태만 떨어져 되겠느냐> 프로젝트 고도 <아빠 안영호 죽이기> 프로젝트 XXY <여기에는 메테이아가 없습니다> 원지영 <원의 안과 밖: 탄생비화>	2019	Kim MyungHwan <HAITAI> Park Hyeonji <History of Discarded Paper> Kim Jeong, Park Hee-eun, Choi Heejin <Finding the Trace: A Korean classical actress, Bok Hae Sook> Project GODOT <Kill Ahn Young Ho> Project XXY <There is no Medeia here> One Jiyoung <In and Out of the One: The Origin Story>
남현우 <척하면 척> 종이인간 <종이인간> EG <퐁크툼> 김희영 <방울목 프로젝트> 丙 소사이어티×김한결 <의자, 눈동자, 눈먼 예언자> 허나영 <역적인 탐구 여행사(靈)>	2018	Nam Hyunwoo <Chuck> The Paper man <The Paper man> EG <Punctum> Kim Heeyoung <Bang-Wol-Mok project> 丙 Society × Kim Hankyul <The Chairs, The Eyes, and a Blind Prophet> Huh Nayoung <0 travel agency>

최윤석 <유리거울> 파랑곰 <제로섬 게임> 김지선 <딤 프레젠테> 오재우 이희문 장현준 <삼각구도> 박서혜 <대안 가정 생태 보고서> 해보카 프로젝트 <카트라인>	2017	Choi Yoonsuk <Glass Mirror> Theatric Company Bluebear <Zero-sum Game> Kim Jisun <Deep Present> Oh Jaewoo, Lee Heemoon, Chang Hyunjoon <Triangular structure> Park Seohye <The mode of alternative family> HaVokA Project <Cut/ine>
---	------	---

이승희 이향하 <여보세요> 황이선 <앨리스를 찾아서> 정동욱 <디지털 네이션> 신유청 <소리의 威力위력> 장현준 <몸으로 거론한다는 것>	2016	Lee Seunghee, Lee Hyangha <Excuse me> Hwang Esun <Finding Alice> Jeong DongUK <Digital Nation> Shin Yucheong <The Power of Sound> Jang Hyunjoon <Discussion through the Body>
--	------	---

파랑곰 <치킨게임> 유목적 표류 <유목적 표류> 적극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김동화 조선희 김지선 <미제리코르디아> 이보람 <여자는 울지 않는다> 정진새 <브레인 컨트롤> 아해프로젝트 <고도리를 기다리며>	2015	Theatric Company Bluebear <Chicken Game> Nomadic Drift <Nomadic Drift> Zuck Geuk <Dappertuttostudio> Kim Donghwa, Cho Sounhyong, Kim Jisun <Misericordia> Lee Boram <Women shed no tears> Jeong Jinse <Brain control> Ah-hae Project <Waiting for GODOThori>
--	------	--

양손프로젝트 <오셀로> 안은미세컨드컴퍼니 <생활활무용> 비빙의 젊은 연주자들 <굿을 바라보는 3인의 시선> 지호진 <왕의 의자> 이자람 <판소리 단편선_주요섭 추물/살인> 극단 바바서커스 <외투, 나의 환하고 기쁜 손님> 이파리드리 <별일없이 화려했던> 전진모 윤성호 <이런 꿈을 꾸었다> 카입 황정은 이경화 <타토와 토>	2014	Yangson Project <Othello> Eun-me Ahn Second Company <Life Dance> Be-Being's Young <The Gazes of Three People Watching Gut> Jee Hojin Play <King's Chair> Lee Jaram <A Pansori Short Story_ Joo Yo-seop, An Ugly Person/ Murder> Baba Circus <The Overcoat, My Bright Dear Visitor> Efalidri <It Was Glamorous Without Incident> Jun Jinmo, Yoon Sungho <This is the Dream I Dreamed> Kayip, Hwang Jungeun, Lee Kyunghwa <Tato & Toe>
--	------	--

<p>민새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김혜경 김기범 정완영 <신진안무가전> 여신동 <사보이 사우나> 김아람 <우리들의 언어영역> 이경성 <서울연습-모델,하우스> 미미 시스터즈 <시스터즈를 찾아서> 성기웅 <가모메> 김제민 <노마일가> 창작집단 독 <당신이 잃어버린 것> 하림 <해지는 아프리카></p>	2013	<p>Min Saerom <A Small Good thing> Kim Hyekyoung, Kim Kibum, Jung Wanyoung <Young Choreographers> Yeo Shindong <Savoy Sauna> Kim Ahram <Frolicked with Literature> Lee Kyungsung <Practice of Seoul – Model, House> Mimi Sisters <How Are You Sisters?> Sung Kiwoong <Karumegi> Kim Jaemin <An angry horse's diary> Creative group Dock <Something You Lost> Hareem Musical Puppet <Africa at Sunset></p>
<p>양손프로젝트 <죽음과 소녀> 정가악회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김동연 <심야식당> 이곤 <트루 러브> 김한내 <SOUND 필수불가결劇 ear_TH> 이수인 <왕과 나> 양지원 호프치앙 <트래블링 홀타운> 이영석 <수다연극-청춘수업>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p>	2012	<p>Yangson Project <Death and the Maiden> Jeong Ga Ak Hoe <I Tell You> Kim Dongyeon <Late Night Restaurant> Lee Gon <True Love> Kim Hannae <SOUND ear_TH> Lee Suln <The King and I> Yang Jiwon Hope Chiang <Traveling Hometown> Lee Youngseok <Talk Theatre –Class for the Young> Taroo <Pansori Hamlet Project></p>
<p>이경성 <24시-밤의 제전> 이동선 <숲 속으로> 박해성 <믿음의 기원> 신유청 <The Zoo Story> 조용신 <모비딕> 김은성 <목란언니> 류주연 <지금 연습 중입니다></p>	2011	<p>Lee Kyungsung <24 Hours– A Night Festival> Lee Dongsun <Into theWoods> Park Haesung <Origin of Trust> Shin Yucheong <The Zoo Story> Cho Yongshin <Moby Dick> Kim Eunsung <Sister Mokran> Ryu Juyeon <On Practicing></p>
<p>성기웅 <소설가 구보씨의 1일> 현수정 <Passion> 추민주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p>	2010	<p>Sung Kiwoong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Hyun Soojeong <Passion> Chu Minjoo <The House with a Fig Tree></p>

두산아트랩: 미술

두산아트랩은 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시로 2년마다 개최합니다.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두산갤러리 서울 단체전, 전시 관련 제반 비용

DOOSAN Art LAB: Fine Arts

DOOSAN Art LAB is an exhibition held every two years with the aim to discover and support promising new artists in the art field. It hopes to shed light on the future paths of the selected artists and support their careers.

Support

Group exhibition at DOOSAN Gallery Seoul and overall cost related to the exhibition

지원 아티스트

Artists

<p>권현빈, 림배지희, 배혜윤, 이가람 강기석, 박선호, 신정균, 이은희</p>	2019	<p>Kwon Hyun Bhin, Limbai-jihee, BÅ Hejum, Lee Karam Kang Ki Seok, Park Sunho, Shin Jung-Kyun, Lee Eunhee</p>
<p>노혜리, 손현선, 우정수, 임영주, 조혜진</p>	2017	<p>Ro Hyeree, Son Hyunseon, Woo Jeongsu, Im Youngzoo, Jo Hyejin</p>
<p>기슬기, 배윤환, 이수성, 전현선, 조범석, 최병석</p>	2015	<p>Ki Seulki, Bae Yoon Hwan, Lee Soo Sung, Jeon Hyunsun, Cho Beomseok, Choi Byeong Seok</p>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한국 작가들에게 6개월 간 독립된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입주작가에게는 두산갤러리 뉴욕 개인전과 더불어 레지던시 입주 기간 중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현지 미술 관계자 및 관객과의 교류와 보다 폭넓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모기간: 2020.12.1-12.18

DOOSAN Residency New York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vides emerging Korean artists with private studio space and housing for six months. Our support includes a solo exhibition opportunity and various programs that allow the artists to interact with the art scene and audiences in New York and have broadened cultural experiences.

지원 아티스트		Artists
박경률, 우정수, 이윤이, 최윤	2020	Park KyungRyul, Woo Jungsoo, Yi Yunyi, Choi Yun
권하윤, 임영주, 장서영, 황수연	2019	Kwon Hayoun, Im Youngzoo, Chang Seo Young, Hwang Sue Yon
김희천, 기슬기, 박광수, 배운환, 이호인	2018	Kim Heecheon, Ki Seulki, Park Gwangsoo, Bae YoonHwan, Lee Hoin
권용주, 오민, 윤향로, 장파, 최수양	2017	Kwon Yongju, Oh Min, Yoon Hyangro, JangPa, Choi Xooang
강동주, 박재영, 안정주, 유현경, 이윤성, 이은실	2016	Kang Dongju, Park Jae Young, An Jungju, You Hyeonkyeong, Lee Yunsung, Lee Eunsil
김민애, 김영나, 백정기, 이혜인, 정지현, 차재민	2015	Kim Minae, Kim Na, Beak Jungki, Lee Hyein, Jung Jihyun, Cha Jeamin
김상돈, 김지은, 이완, 장보윤, 장지아, 전소정	2014	Kim Sangdon, Kim Ji Eun, Lee Wan, Jang Boyun, Chang Jia, Jun Sojung
문성식, 박주연, 유승호, 이소정, 이재이, 함진	2013	Moon Sungsic, Park Joo Yeon, Yoo Seungho, Lee Sojung, Rhee Jaye, Ham Jin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박세진, 이지현, 정희승	2012	Koo Donghee, Kim Siyeon, Park MeeNa, Park Sejin, Lee Jihyun, Chung Heeseung
김기라, 김민배, 민성식, 박윤영, 이동욱, 이주요	2011	Kim Kira, Kim Inbai, Min Songsik, Park Yoon Young, Lee Dongwook, Rhi Jewyo
권오상, 김인숙, 백승우, 성낙희, 홍경택	2010	Gwon Osang, Kim In Sook, Back Seung Woo, Sung Nakhee, Hong Kyoung Tack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2009	Lee Hyungkoo, Chung Suejin, Choe Uram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젊은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3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세미나·워크샵으로 현대미술 이론과 현장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교육이 끝난 후, 3명의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해 1년 간의 연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큐레이팅 기회를 갖게 합니다.

☆ 공모기간: 2020.1.1-2.28

DOOSAN Curator Workshop

DOOSAN Curator Workshop is designed to guide and support young Korean curators and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Three curators are selected every year, and the program consists of contemporary art lectures, workshops, and seminars led by professionals of diverse fields in contemporary art. After the workshop, the three participants ar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realize their studies and research by co-organizing an exhibition.

지원 큐레이터		Curators
맹나현, 전민지, 정해선	2020	Maeng Nahyun, Chun Minji, Chung Haesun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2019	Park Suzy, Park Ji Hyung, Cheon Lim
유은순, 유지원, 이진	2018	Yoo Eunsoon, Yu Jiwon, Lee Jin
김민정, 송고은, 신지현	2017	Kim Minjung, Song Goeun, Shin Jihyun
김수정, 최정윤, 추성아	2016	Kim Sue, Choi Jeongyoon, Choo Sungah Serena
이설희, 장혜정, 최희승	2015	Lee Seolhui, Jang Hyejung, Choi Heeseung
김소영, 박보람, 박은지	2014	Kim Soyoung, Park Boram, Park Eunji
이성희, 장순강, 홍이지	2013	Lee Sunghee, Chang Sunkang, Hong Leeji
김소영, 윤민화, 최다영	2012	Kim Michelle Soyoung, Yun Minhwa, Choi Michelle Dayeong
강소정, 김수영, 조은비	2011	Kang Sojung, Kim Sooyoung, Jo Eunbi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써온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DOOSAN Artist Award

This award was established in 2010 to honor the intend and philosophy of DOOSAN's Founder Park Toopyung, who devoted himself to cultivating talent. This award recognizes the contribution of outstanding young artists under the age of 40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and fine arts.

공연 부문 지원

상금 3천만 원, 신작 공연 제작비 지원

Performing Arts Support

Prize of 30 million KRW, the cost of production for creating new work

윤미현 작가	2019	Yun Mihyun Playwright
김정 연출	2018	Kim Jeong Director
이연주 작가·연출 〈인정투쟁; 예술가 편〉	2017	Lee Yeonjoo Playwright/Director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Artist〉
구자혜 작가·연출	2016	Khoo Jahye Playwright/Director
이자람 국악창작자 〈노인과 바다〉	2015	Lee Jaram Pansori Artist 〈The Old Man and the Sea〉
이경성 연출 〈러브 스토리〉	2014	Lee Kyungsung Director 〈Love Story〉
성기웅 작가·연출 〈20세기 건담기 建談記〉	2013	Sung Kiwoong Playwright/Director 〈Meandering from The 20 th century〉
김은성 작가 〈썬샤인의 전사들〉	2012	Kim Eunsung Playwright 〈Sunshine Warriors〉
윤한솔 연출 〈1984〉	2011	Yoon Hansol Director 〈1984〉
김낙형 작가·연출	2010	Kim Nakhyung Playwright/Director

미술 부문 지원

상금 3천만 원,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두산갤러리 뉴욕 및 서울 전시 지원

Fine Arts Support

Prize of 30 million KRW, DOOSAN Residency New York, Exhibitions at the DOOSAN Gallery both in New York and in Seoul.

김주원	2019	Kim Juwon
이윤이	2018	Yi Yunyi
권하운	2017	Kwon Hayoun
이호인, 박광수, 김희천	2016	Lee Hoin, Park Gwangsoo, Kim Heecheon
강정석, 오민, 유목연	2015	Kang Jungsuck, Oh Min, Yoo Mok-Yon
강동주, 안정주, 이윤성	2014	Kang Dongju, Ahn Jungju, Lee Yoonsung
김민애, 김영나, 차재민	2013	Kim Minae, Kim Na, Cha Jeamin
김상돈, 김지은, 장지아	2012	Kim Sangdon, Kim Jieun Chang Jia
박주연, 이소정, 이재이	2011	Park Jooyeon, Lee Sojung, Rhee Jaye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2010	Koo Donghee, Kim Siyeon, Park MeeNa

교육 프로그램

두산아트센터는 문화예술에서부터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매년 흥미로운 주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ducational Programs

Ranging from art and culture to the humanities, DOOSAN ART CENTER's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are designed with intriguing themes and activities aimed for the general public.

<p>두산인문극장 매년 상반기 하나의 주제로 과학, 사회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제와 연관된 공연, 강연을 포괄하는 통합 기획입니다.</p>	6.1 — 7.27	<p>DOOSAN Humanities Theater This is an integrated project encompassing plays and lectures, and aims to bring social issues to the forefront in the first half of each year.</p>
<p>두산아트스쿨: 미술 국내외 현대예술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무료 강좌입니다.</p>	10.8 — 11.5	<p>DOOSAN Art School: Fine Arts This program offers free lectures and encourages the public appreciation of contemporary art originating from Korea and overseas.</p>
<p>두산아트스쿨: 공연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자,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p>		<p>DOOSAN Art School: Performing Arts This program focuses on exploring works by organizers and artists in performing arts.</p>

<p>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예술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창작 기회를 제공합니다.</p>	7.4 — 12.5	<p>DOOSAN Art School: Workshop In this program, young aspiring artists partake in projects and trainings in the arts conducted by performing artists working in the field.</p>
<p>두산아트센터 투어 연강홀, Space111, 두산갤러리 서울 등을 돌아보며 두산아트센터의 시설, 역사,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p>	2.10 / 8.20 / 10.22	<p>DAC Tour Tour offers a learning experience of DOOSAN ART CENTER's history, facilities and major programs while exploring Yonkang Hall, Space111, DOOSAN Gallery, and other facilities.</p>

두산인문극장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에 이어 2020년에는 '푸드 FOOD'를 주제로 인문·사회·과학 분야 강연을 진행합니다.

푸드	2020	FOOD
강연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6.1	이육정
강연 다윈과의 만찬	6.15	전중환
강연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6.22	이도현
강연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유	6.29	김성한
강연 음식의 정신심리학적 의미	7.6	김울리
강연 오늘의 식탁	7.13	정재훈
강연 농업이라는 산업, 농산물이라는 상품	7.20	김태호
강연 식품의 세계체제와 한국음식의 미래	7.27	주영하

아파트	2019	Apartment Nation
강연 한국, 돈, 생활, 정치, 욕망, 기억, 골목, 미래		박철수, 이진우, 정현목, 박해천 김민섭, 정재호, 임형남, 노은주, 강재호

DOOSAN Humanities Theater

DOOSAN Humanities Theater brings together sociological, humanities and artistic imagination on humans and society. Each year, a theme is selected to be discuss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performances, exhibitions, lectures, and artist talks. Past subjects include "Big History" in 2013, "The Age of Distrust" in 2014,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in 2015,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in 2016, "Conflict" in 2017, "Altruist" in 2018, and "Apartment Nation" in 2019. The theme for 2020 is "FOOD". A variety of lectures on humanities, sociology, and science regarding this subject will be conducted.

이타주의자	2018	Altruist
강연 동서양 역사와 철학을 통해 본 이타주의자		이상수, 이진우
강연 사회과학을 통해 본 이타주의자		최정규, 김현경
강연 자연과학을 통해 본 이타주의자		김준홍, 김학진, 남창훈, 홍성욱

갈등	2017	Conflict
강연 사회인류학적 갈등		김예란, 김현경, 백태웅, 이상희, 이현재
강연 정치경제학적 갈등		구갑우, 김연철, 송지우, 홍기빈
강연 생태학적 갈등		박지형
영화 무산일기, 밀그램 프로젝트, 대담해줘		박정범, 마이클 알메레이다, 김연실

모험	2016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강연 새로운 상상		다카노 히데유키, 전치형, 김용대, 이상길
강연 문학 속 모험		박상진
강연 영역의 확장		윤신영, 이정모, 이두갑, 정인철, 이관수
영화 잊혀진 꿈의 동굴,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인투 더 와일드		베르너 헤어조크, 이호재, 손 펜

예외(例外)	2015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강연 과학의 눈으로 본 예외		이충형, 임태연, 홍성욱
강연 역사와 일상 속에서 만난 예외		강상중, 김기창, 김호
강연 정치와 사회 국면의 예외		김항, 박상훈, 최정규
영화 들개, 소설포비아, MJ/바캉스/ 침입자		김정훈, 홍석재, 김희진/이현주/박근범

불신시대	2014	The Age of Distrust
강연 타인과의 관계		민승기, 서동진
강연 사회와 체제		박해천, 최장집, 한병철, 홍기빈
강연 공동체의 모습		강진호, 김진석, 심보선
영화 계보와 그림자, 이웃의 소리들,		마노엘 드 올리베이라, 클레버 필류,
영화 지젝의 기묘한 이데올로기		소피 파인즈 & 슬라보예 지젝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2013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강연 Big Bang: 우주와 생명의 기원		이덕환, 이명현
강연 Big Life: 자연과 인간		강호정, 최재천
강연 Big Net: 문명과 인류의 미래 지형		데이비드 크리스천&조지형
영화 리바이어던, 현재의 바깥에서		루시엔 캐스팅-테일러, 베레나 파라벨, 안드레이 우지카

두산아트스쿨: 미술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별 평론가나 아티스트를 초청해 무료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합니다.

DOOSAN Art School: Fine Arts

This Program is a free lecture program that is open to the public audiences who are interested in art, enriching their comprehension of contemporary art trends in Korea and abroad. By inviting and presenting lectures by art critics and artists, the program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Korean contemporary art and expands the base of Korean contemporary a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미술관 건축순례 예술공간 vs. 공간예술	2020	남성택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2019	정윤아
현대미술의 탄생-서양19세기 미술		양정무
건축, 토탈아트 혹은 레디메이드	2018	남성택
귀족문화로 읽는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양정무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서양 근대 문명과 미술	2017	양정무
또 다른 건축을 향하여	2016	남성택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
건축과 미술의 밀월	2015	남성택
한국근대미술-전통과 문명의 갈림길에서		박영택
현대미술의 세계	2014	강희경, 김상규, 남성택, 신혜영, 정윤아
내일을 향한 답문-한국의 현대미술가에게 묻고 듣는다 2		임근준
여기서 뛰어라! 지금 이곳의 젊은 미술		박영택
서양 현대미술, 아시아를 만나다	2013	정윤아
내일을 향한 답문-한국의 현대 미술가에게 묻고 듣는다		임근준
새로운 사진사		박상우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그리고 내일	2012	김성원, 김홍희, 김희진, 심상용, 임근준
전통이란 코드로 읽어보는 한국현대미술		박영택
20세기 아방가르드 사진	2011	박상우
에고트립-예술가처럼 자아를 확장하는 법		임근준
현대미술강좌	2010	정윤아
이것이 현대적 미술 2/2		임근준
한국대중음악산책	2009	강현
테마로 읽는 한국현대미술		박영택
이것이 현대적 미술 1/2		임근준
이것이 오늘의 미술 1/2	2008	임근준
현대미술의 감상과 이해		박영택

두산아트스쿨: 공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현장 이야기. 2017년부터는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자,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업할 때 무슨 고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들어봅니다.

DOOSAN Art School: Performing Arts

This program focuses on exploring works by organizers and artists in performing arts.

뮤지컬 프로듀싱과 브랜딩 전략	2019	오훈식
연극의 연습, 연습의 연극 - 배우 편		성수연
아주 조금 다른 짓 해보기		김태형
뮤지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이선영, 한정석
연극, 만남의 예술	2018	김재엽
무대 위의 빛		최보윤
집요한 놀이의 미학		이은결
음악 본능		하림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이 있을까?	2017	박근형
춤추는 몸 이야기		안은미
무대와 미술		여신동
공동작업의 힘		양손프로젝트
우리는 왜 인간 본성의 '악'을 주목해야 하는가	2016	정유정
내가 배운 요리, 삶의 요리 - 왜 우리는 요리에 열광하는가		박찬일
잡념과 온전함		백현진
순간을 살아가		고선웅
그대의 인생의 막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2015	장유정
우리 모두가 미뤄두는 3가지의 질문		이종범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모르겠는 것이 훨씬		이자람
많을 것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120분		
사는 동안 멋지게		박칼린
젊음의 시간들 소설가	2014	천명관
행복한 이기주의자		최정원
소중한 사람들		손현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정이현
Smallness		장영철
세상과 만나는 걸음의 속도에 관하여		안은미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예술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창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곡 워크숍	2020	윤성호
연기·연출 워크숍		김수정
무대미술 워크숍		진기종
희곡 워크숍	2019	윤성호
연기·연출 워크숍		김수정, 김보경
무대미술 워크숍		여신동
판소리 워크숍		이승희, 이향하

DOOSAN Art School: Workshop

A workshop program designed to promote robust engagement with artists in their creative spaces. The program provides creative opportunities for young individuals aspiring to become artists, informing them of various ways to reinforce their creative artistic pursuits.

두산아트센터 투어

연강홀, Space111, 두산갤러리 서울 등을 돌아보며 두산아트센터의 역사, 무대, 시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2.10 / 8.20 / 10.22	2020
220명 참여 (매월 마지막 목요일 진행)	2019
240명 참여 (매월 마지막 목요일 진행)	2018
132명 참여 (8회 진행)	2017
120명 참여 (6회 진행)	2016
139명 참여 (9회 진행)	2015
81명 참여 (4회 진행)	2014

DAC Tour

Tour offers a learning experience of DOOSAN ART CENTER's history, facilities and major programs while exploring Yonkang Hall, Space111, DOOSAN Gallery Seoul, and other facilities.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연강홀. 2007년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 했으며, 뮤지컬, 연극, 무용 등을 선보입니다.

Yonkang Hall

Yonkang Hall was constructed as part of DOOSAN's 100th anniversary project in 1993. Since its renovation in 2007, Yonkang Hall with a seating capacity of 620 has presented performances of various genres such as musical, play, and dance.

뮤지컬 팬레터	2019.11.7	— 2.2	Fan Letter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5.29	— 8.23	bare the musical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9.19	— 11.8	THE HISTORY BOYS
뮤지컬 HOPE: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11.19	— 21.2.7	HOPE: THE UNREAD BOOK AND LIFE

〈팬레터〉는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2016년 초연에서 2017년 재연까지 창작 뮤지컬로는 이례적인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팬레터〉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경성시대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1930년대 경성, 팬레터를 계기로 문인들 세계에 들어가게 된 작가 지망생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다. 당대 문인들의 일화를 통해 그들의 예술세계와 사랑, 예술가들의 삶과 고민을 들여다본다.

Fan Letter is an original musical featuring the oppressive era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show garnered attention as tickets sold out for both its premiere run in 2016 and re-run in 2017, an unusual feat for original productions in Korea. *Fan Letter* is inspired by the Circle of Nine, a group of writers in early 20th century Korea under Japanese rule, as well as their contemporaries such as the novelist Lee Sang and Kim Yujeong. The show features the coming-of-age story an aspiring writer who ventured into the world of renowned literary figures of Gyeongseong (Seoul) in the 1930s. Through anecdotal episodes of the writers of the period, the show peers into their literary world, love, lives as artists, and dilem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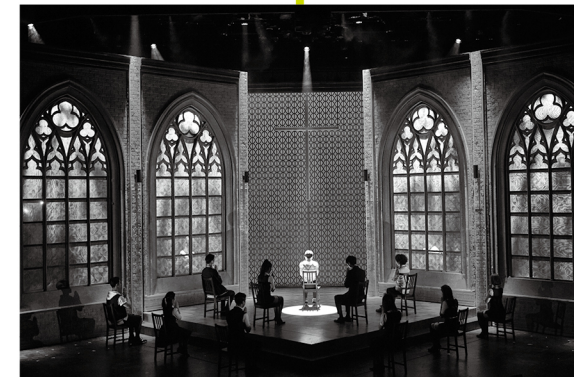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창작뮤지컬 선정작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크리에이터 발굴지원사업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1 최종 선정작

주최·주관·제작: 라이브(주)
 프로듀서: 강병원
 연출: 김태형
 극작: 한재은
 작곡: 박현숙
 출연: 김재범 김중구 김경수 이규형 이용규 문성일
 윤소호 백형훈 김수연 소정화 김히어라 김지휘
 정민 박정표 등

〈베어 더 뮤지컬〉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카톨릭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터와 제이슨은 비밀커플이다. 피터는 커밍아웃을 원하지만 킹카인 제이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커밍아웃을 거부해 두 사람의 갈등은 점차 커진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엇갈린 사랑과 우정 등 청춘들의 비밀스런 성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려낸다. 격동적인 안무와 중독성 강한 음악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bare the musical is a coming-of-age musical which addresses the stories of youth that could never be shared. Peter and Jason are a couple attending a Catholic high school. While Peter wants to come out of the closet, Jason remains hesitant out of his fear of losing his status as the popular kid. Jason's refusal to come out serves to exacerbate the conflict between him and Peter. The musical presents a frank portrayal of a secretive coming-of-age story fraught with dilemma over sexual identity, star-crossed love, and friendship, as rigorous choreography and addictive music fill the stage.



프로듀서: 임동균
 예술감독: 이재준
 연출·안무: 정도영
 각색: 김윤영
 한국어 가사: 이정미
 음악감독: 원미술
 출연: 기세중 오승훈 정휘 김리현 문성일 임준혁
 홍승안 김진욱 허혜진 임예진 등

화목금 8시/수 4시, 8시/토 3시, 7시/일공휴일 2시, 6시
 R석 88,000원/S석 66,000원

<히스토리 보이즈>는 영국 극작가 앨런 베넷의 대표작으로 1980년대 영국의 공립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2013년 초연 이후, 인생에 대해 유머러스하지만 현실감 있게 다룬 작품으로 꾸준히 호평을 받았다. 대학 입시를 앞둔 8명의 학생들과 각자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선생님들의 관계를 다룬다. 역사, 철학, 시, 음악 등 풍성한 이야기 함께 지적인 유머를 더해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유쾌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The History Boys is one of the key works by the British playwright Alan Bennett. The play is set in a British public high school in the 1980s. Since its premiere in Korea in 2013, the play has been lauded for its humorous yet realistic portrayal of life. The pla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eight students preparing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and teachers who try to lead the students in their own ways. Filled with robust stories embellished with elements of history, philosophy, poetry, and music, the play also adds intellectual humor to present a matter-of-fact yet cheery perspective on learning and teaching.



2014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2006 Tony Award 'Best Play' 외 5개 부문
2005 Laurence Olivier Award 'Best New Play' 외 2개 부문

기획·제작: 노네임씨어터컴퍼니
작: 앨런 베넷(Alan Bennett)
번역: 여지현 이인수
드라마터그: 이인수
연출: 김태형

시간 미정
가격 미정

<HOPE>는 극작가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유작 원고 반환 소송 실화를 모티브로 창작됐다. 베르트는 친구 요제프의 재능을 동경한다. 자신이 죽으면 원고를 모두 태워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제프가 남긴 원고를 소중히 보관한다.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요제프의 원고는 베르트의 연인인 마리와 딸 호프에게 전해진다. 살아 생전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 요제프는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게 된다. 이후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 호프에게 요제프의 유작 원고 반환을 요청하며 원고를 둘러싼 재판이 30년간 이어진다. 8세부터 78세까지 원고를 평생 지켜온 호프의 생애를 심도 있게 조명한다. 초연 당시 탄탄한 구성의 스토리와 높은 완성도로 호평을 받았다.

HOPE is inspired by the true story of the lawsuit over the ownership of Franz Kafka's posthumous work. Bert admires the talent of his friend Joseph. Despite the latter's urging to burn his manuscript upon his death, Bert holds dearly onto his friend's writings. One day, World War II breaks out and Joseph's manuscripts are passed onto Bert's lover Marie and her daughter Hope. Although hardly anyone read Joseph's works during his lifetime, Joseph posthumously becomes renowned as one of the great writers of contemporary literature. Later, the National Library of Israel requests Hope to return Joseph's manuscripts, beginning 30 years of trials over the ownership of the materials. The musical closely portrays the life of Hope, who safeguarded the manuscripts from the age of 8 to 78. *HOPE* garnered much praise for its solid story and level of completion during its premiere.



2020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뮤지컬 부문 선정작
2020 한국뮤지컬어워드 대상, 프로듀서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김효은/음악감독-신은경),
여자 주연상(김선영), 여자 조연상(이예은)
2019 예그린뮤지컬어워드 올해의 뮤지컬상, 극본상,
올해의 배우상(김선영)
2018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뮤지컬 부문
선정작

제작: 알앤디웍스
극본: 강남
작곡: 김효은
연출: 오루피나
음악감독: 신은경
안무감독: 채현원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2007년 문을 연 Space111은 젊은 예술가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DOOSAN Art LAB

연극 앵커	1.30 – 2.1	The Anchor
연극 양질의 단백질	2.6 – 2.8	Quality Protein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2.13 – 2.15	Existence, Viability and Egoism
연극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2.20 – 2.22	Do you remember my death

두산인문극장 2020: 푸드

연극 1인용 식탁	5.6 – 5.23	Table for One
연극 궁극의 맛	6.2 – 6.20	GOKUDO MESHU
연극 식사(食事)	6.30 – 7.18	The Way of Eating

Space111

Space111 was opened to commemorate the 111th anniversary of the DOOSAN Corporation, and works on behalf of supporting young artist's innovative endeavors.

DAC Artist

판소리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9.16 – 9.25	In a Dream – I, A Hitchhiker with a Reason
연극 꿈이 아닌 연극	10.13 – 10.31	Not a Dream Play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구자혜 신작	11.10 – 11.28	New Work by Khoo Jahye
-----------	---------------	------------------------

공동기획

연극 문밖에서	7.25 – 8.1	Outside the door
연극 마른 대지	8.8 – 8.23	Dry Land
연극 크리스천스	12.5 – 12.26	Christians

하루에도 셀 수 없이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팩트체크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의 언론은 어떤 모습일까? 연극 <앵커>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모티브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어느 날, 대형 언론의 메인 앵커는 동료 기자가 살해당했다는 기사를 접한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앵커는 이 사건을 특종으로 판단하고 용의자 K의 신상을 마구잡이로 보도한다. 뉴스는 점점 객관성을 잃어가고,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보도 속에서 용의자 K는 완벽한 범인이 되어간다. 앵커는 용의자 K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통제가 불가능해진 마녀사냥은 계속된다. 서정완은 권력을 가진 언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속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본다.

What does the state of journalism look like today, in an era wherein countless fake news articles pour out each day, necessitating fact-checking as an essential part of accessing information? *The Anchor* is a play inspired by the novel *The Lost Honour of Katharina Blum* by the Nobel Laureate Heinrich Böll. One day, the main anchor of a giant media outlet reads an article that says that his colleague reporter has been murdered. With his potent influence, the anchor determines that this story is exclusive-worthy material and wantonly reports the descriptions of the suspect, K. The news story increasingly loses its objectivity, turning K into the perfect culprit as no one tries to restrain the reports. Although the anchor comes to learn the truth behind the case through an interview with K, the witch hunt continues, as it has already spiraled out of control. Seo Jeong Wan focuses on the problems that occur from the powerful press in order to explore the role of journalism in Korean society.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서정완
출연: 김성현 김유진
드라마터그: 안준원
무대디자인: 최영은
조명디자인: 강지혜
영상디자인: 최대용

<양질의 단백질>은 자신들이 완벽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 있다고 믿는 여성 쌍둥이 머루와 오디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평생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란 쌍둥이에게 집은 그야말로 완전한 공간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가스검침원, 수리기사 등 외부인들이 집 안에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쌍둥이는 집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동시에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김연주는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 탐구해 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 사회 속 여성의 삶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Quality Protein tells the story of the twin girls Meoru and Odi, who believe that they believe in a perfectly safe "house." Having relied on their mother's words as the sole source of information all their lives, the twins perceive their home as the perfect space. However, when their mother goes out on an errand, strangers such as the gas inspector and repairman enter the twins' home. The twins gradually lose their faith in their home and begin to grow suspicious of something. Yeonju Kim focuses on studying and dramatizing the absurd phenomena in society. Through this work, Kim challenges the audience's perception of what they had taken for granted and discusses the lives and growth of women in society.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김연주
출연: 백진욱 이은정 이혜선
무대디자인: 박원욱
조명디자인: 신아현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두산아트랩 2020

2.13 — 2.15

**Existence, Viability
and Egoism**

DOOSAN Art LAB 2020

오늘날 우리는 더 완전해지기 위해 ‘결혼’이라는 관계를 택하고, 혹은 택하지 않는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결혼에 대해 압박을 받는다. 연극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는 불 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4년 만에 이혼하고 각자의 연애를 하고 있는 희수와 남일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황정은, 진주, 최보영 3명의 작가는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본질은 무엇인지, 결혼이라는 관계의 현주소는 어떤지 돌아본다.

We all either choose or choose not to engage in the relationship called “marriage” in order to become more complete. Even in today’s era wherein marriage is no longer an essential, but an optional, part of life, many people are still pressured to get married. *Existence, Viability and Egoism* explores the issue of marriage through the story of Heesu and Namil, whose passionate romance culminated in a marriage that ended in divorce four years later, leaving them to date other people instead. The three playwrights Hwang Jeong-eun, Jin Joo, and Choi Boyoung ask fundamental questions about “relationships” through the topic of marriage. The play reflects on the essence of marriage as we know it today, and where the relationship of marriage stands today.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이인수
출연: 박세정 차은수 김수아 양나영
기획: 전민서
무대디자인: 송지인
조명디자인: 송진주
음악·음향디자인: 이승호

연극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두산아트랩 2020

2.20 — 2.22

**Do you remember
my death**

DOOSAN Art LAB 2020

<내 죽음을 기억하시나요>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르완다 대학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과정을 취재한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끌로에는 자신을 찾아온 가해자 장 끌로드의 화해요청을 계속해서 외면한다. 하지만 장 끌로드가 일곱 번째 화해를 요청하던 날, 그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한다. 추태영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와 배우들과의 공동창작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버batim(verbatim*) 형식으로 결합해 선보인다. 작품을 통해 시대와 개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화해’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Do you remember my death is based on actual interviews conducted by a documentary artist of the victims and perpetrators of the Rwandan genocide, and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groups. Chloé continues to ignore the pleas of Jean Claude to reconcile after the latter’s involvement in the genocide. However, she decides to finally accept Jean Claude’s apology when he asked for the seventh time. Chu Taeyoung presents verbatims by combining dramas reconstructed based on transcripts and collaborations with actors. Through his works, Chu asks his audience to think about the true ‘reconciliation’ that’s required for the individual and the times.

* 버batim(Verbatim):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뜻하는 단어로 연극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재연함을 의미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 추태영 백지영
연출: 추태영
출연: 최영도 이경훈 김수민 이창민 박석원
조수지 강수현 김철빈 김윤아 정아람
무대디자인: 이윤지
영상디자인: 이아란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먹어야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먹는 일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를 살피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다. 각 지역이나 민족별로 발달한 음식문화는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듯 음식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생활은 거대 산업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매우 커졌다.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수단보다는 개개인을 표현하는 지표에 더 가까워졌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없었던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먹는 일과 함께 다뤄지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담론은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갈수록 넓어진다. 이 광범위한 이야기를 두산인문극장 2020은 '푸드 FOOD'라는 주제로 묶었다. 우리는 먹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ll creatures must eat in order to survive. Humans are not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Unlike other animals, however, humans have conferred different meanings on the activity of eating, and have thus ingested their victuals in a variety of ways. Examining what and how humanity ate in the past can reveal the history of how current culinary practices came to be. The food cultures unique to each region or ethnic group also represent the identity of said groups. As can be seen, the culture of food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humanity throughout all time and space.

With the rapid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today, our ingestive endeavors have been appropriated by giant industries. We can also now choose what to eat from a great variety of food today. Eating has become more of an index for expressing each individual rather than the means of survival. As a result, ethical and social issues are now discussed alongside the question of eating in unprecedented ways. The discourse on what and how to eat grows novel and more diverse each day. The Doosan Humanities Theater 2020 has encompassed such a wide-ranging story into a single theme, "FOOD." This initiative will help us discover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as eaters.

연극 1인용 식탁	5.6	5.23	원작 윤고은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연극 궁극의 맛	6.2	6.20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연극 식사(食事)	6.30	7.18	출연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김원태 연출 윤한솔
강연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6.1		이육정
강연 다원과의 만찬	6.15		전중환
강연 가족, 집에서 기르는 짐승	6.22		이도현
강연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유	6.29		김성한
강연 음식의 정신심리학적 의미	7.6		김율리
강연 오늘의 식탁	7.13		정재훈
강연 농업이라는 산업, 농산물이라는 상품	7.20		김태호
강연 식품의 세계체제와 한국음식의 미래	7.27		주영하

<1인용 식탁>은 윤고은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오인용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유도 모른 채 소외되어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게 된다. 혼밥을 잘 해내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하고 점차 혼자 하는 식사에 익숙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에 참석한 오인용이 학원에서 배운대로 밥을 먹은 후, 이상하게도 직장 동료들이 식사를 제안해온다. 하지만 오인용은 혼밥하는 법을 배우는 학원에 다시 등록한다. <1인용 식탁>은 ‘혼밥’이라는 식문화를 통해 우리 안의 외로움과 동시에 공존하고 싶은 욕망을 들여다본다. 극작가 이오진과 창작집단 LAS 대표 이기쁨 연출가가 참여한다.

Table for One is an adaptation of the short story written by Yoon Ko-eun. Oh Inyong is left to eat by himself as he is shunned by his colleagues for reasons unknown to him. In order to eat alone well, he takes lessons on how to eat alone and acclimates to eating by himself. One day, when Oh eats in the manner he learned in his lessons during a company outing, his colleagues ask him to join them at their table, oddly enough. However, Oh once again signs up for lessons on how to eat by himself. *Table for One* examines the loneliness and desire for coexistence within us through the culture of honbap (eating by onself). Adapted by the playwright Lee Ojin, *Table for One* is directed by Lee Gippeum, the leader of the drama group Play the LA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원작: 윤고은 『1인용 식탁』,
『1인용 식탁』(문학과지성사, 2010)
각색: 이오진
연출: 이기쁨
출연: 김시영 윤성원 이새롬 류혜린 이화정
허영손 김연우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전석 무료

<궁극의 맛>은 도박, 폭행, 살인 등으로 다양한 죄목으로 수감된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의 속사정이 음식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재소자들은 익숙하고 소박한 음식과 마주하며 맛 이상의 의미를 떠올린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음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던 ‘궁극의 맛’을 발견한다. ‘두산아트랩 2020’ 선정 창작자인 황정은, 진주, 최보영 극작가가 각색을 맡고, 연극 <녹천에는 똥이 많다>로 제56회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수상한 신유청이 연출한다.

GOKUDO MESHI tells the tale of inmates with various criminal records, from gambling to assault and murder. As the inmates trudge through each day cut off from society, they begin to share their history through their recollection of their favorite food. As the inmates remember the familiar and humble food they used to enjoy before their incarceration, they begin to associate meaning beyond the gastronomic experience. While such food may seem far too ordinary and quotidian to some, the stories contained within each dish allows the audience to discover the “ultimate taste” of our lives. Adapted by the playwright awardees of DOOSAN Art LAB 2020 Hwang Jeong-eun, Jin Ju, and Choi Boyoung, the play is directed by Shin Yoo-cheong, the winner of Best Director for the 56th Dong-A Theater Award for her work *Nokcheon Has Fields of Shit*.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원작: 츠치야마 시게루 土山しげる
『고쿠도메시 極道めし』(후타바사 간행)
각색: 황정은 진주 최보영
연출: 신유청
드라마터그: 윤성호
출연: 강애심 이수미 이주영 이봉련 김신혜
신윤지 송광일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전석 무료

미각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지만, 식사(食事)는 공적인 영역에서 적당한 예의와 규칙을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유들이 뒤섞여 발생하는 '식사'라는 사건을 통해 음식과 먹는 행위 안에 작동하는 인간의 '욕망'을 살펴본다. <식사(食事)>는 "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식사'라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공연이다. 공연은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4명의 작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넷이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개별 프로젝트에서는 작가 본인의 개별적인 입맛과 취향, 정치·경제적인 생각들을,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먹는 행위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들여다본다.

Although the matter of one's taste is a highly private area, dining lies in a more public domain as an economic and political activity that requires adherence to a certain set of etiquette and rules. This examination into the activity of "dining" that involves a complex mix of reasons behind the event provides a peek at how human desires work amidst the context of food and eating. *The Way of Eating* is a performance that examines how the event of "dining" one prepares for oneself or others comes to occur. The performance is comprised of projects undertaken individually by Andeath, Yoon Hansol, Lee Ra-Young, and Cho Moonki, as well as a joint project by the four. In each individual project, the creators share their personal tastes alongside their thoughts on politics and economy. The joint project examines the behavior of eating in a more public context.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출연: 안데스 윤한솔 이라영 조문기 김원태
연출: 윤한솔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전석 무료

DAC Artist 이승희는 전통 음악을 넘어 음악,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판소리 창작자다. 2018년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춘향과 그의 내면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신작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는 성춘향에 이어 향단을 다룬 작품으로 2019년 워크숍을 거쳐 발전시켰다. 소리꾼 1인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전통 판소리 형식으로 선보인다. 꿈을 타고 현대에 정착한 향단이가 겪는 사건과 향단의 시선으로 바라본 춘향가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The DAC Artist Lee Seunghee is a pansori creator that goes beyond traditional music and covers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music, theater, and musicals. In the 2018 performance *In a Dream*, Lee intensively explored the protagonist Chunhyang as an individual who determines her own fate and what takes place inside the character's mind. Lee's new work *In a Dream - I, A Hitchhiker with a Reason* is a product of her workshop in 2019. In this performance, the focus shifts from Chunhyang to her handmaid Hyangdan. The show takes the format of traditional pansori performance, with a single sorikkun(singer-storyteller) driving the narrative. Featuring the adventures of Hyangdan as she time travels to the present through her dream, the performance challenges our notions of our own identity and the era in which we live through Hyangdan's perspective on the stories of the protagonists in Chunhyang-ga.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소리: 이승희
고수: 이향하
구성: 이승희 이향하 유현진

화수목금 8시/토 5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연극 **꿈이 아닌 연극**

DAC Artist

10.13 — 10.31

Not a Dream Play

DAC Artist

DAC Artist 윤성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 모순과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 탐구하는 극작가이자 연출가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소외, 불안 등을 자신만의 언어로 섬세하게 풀어낸다.

〈꿈이 아닌 연극〉은 스웨덴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가 1901년 발표한 희곡 『꿈연극』을 재창작했다. 마치 꿈처럼 시공간을 넘나들며 인과 관계 없이 나열되는 「꿈연극」의 이야기들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힘겹고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

윤성호는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를 모티브로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준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The DAC Artist Yoon Sungho is a playwright and a director who focuses on the paradoxical elements of relationships and injustices of the contemporary era. Through ordinary stories that everyone can relate to, Yoon meticulously weaves a tale of marginalization and anxiety with his own unique language. *Not a Dream Play* is an adaptation of *A Dream Play* written in 1901 by the Swedish playwright August Strindberg. The stories in *A Dream Play* traverse through time and space without distinct causality, much like a dream. Over a 100 years later, these stories still resemble our current struggles against the challenging and unjust reality. As Yoon has done in his previous work *The Lonely, The Tired, The Sad* inspired by Anton Chekhov's *Uncle Vanya*, he closely examines the realities of our lives today through this work.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원안: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

『꿈연극』

작·연출: 윤성호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연극 **구자혜 신작**

제7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2016)

11.10 — 11.28

New Work by Khoo Jahye

Recipient of the 7th DOOSAN Artist Award (2016)

제7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구자혜가 신작을 선보인다. 구자혜는 작업 협업체인 ‘여기는 당연히, 극장’에서 작가와 연출가로 참여하고 있다. 연극 〈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킬링 타임〉, 〈commercial, definitely〉, 〈21세기... 연극말이다〉 등의 작업을 통해 사회 이슈를 연극 안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치열하게 탐구해왔다. 특히 구자혜의 연극은 기존 연극 형식에서 벗어나 ‘언어’를 중심으로 무대 위 배우들이 발화하는 목소리를 통해 관객의 감각을 자극한다.

Koo Jahye, the winner of the 7th Doosan Yonkang Arts Awards, wrote and directs her new collaboration work THEATRE, DEFINITELY. Koo's strong research explores ways of capturing social issues through plays, in her works such as *Study on Perpetrators_Appendix: Guide on How to Write an Apology, Killing Time, commercial, definitely, and the 21 century... I mean the play, etc.* Koo's plays in particular take off from the conventional notions of play and focus on 'language', thusby stimulating the sensibility of the audience through the uttered voices of the actors.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여기는 당연히, 극장

연출: 구자혜

화수목금 8시/토일 4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미군 위안부 여성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머니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 및 인식 개선을 통한 할머니들의 사회적 명예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이어졌다.
연극 <문밖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여 젊은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을 보여준다. 할머니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임을 이야기한다.

The story of “American comfort women” (Korean prostitutes who catered to the U.S. military from the mid-1950s to early 1990s) first began as a means of treating the trauma of the old ladies who underwent the experience. It was part of the efforts to restore social dignity to the old women by raising awareness and promoting social empathy. The play *Outside the door* is an extension of such endeavors. Going beyond merely bandaging the scars of the past, the play features a cast of the actual “American comfort women” to show how they are living alongside the younger generations today. The play highlights the fact that these old ladies are not merely victims of the past, but are also our contempor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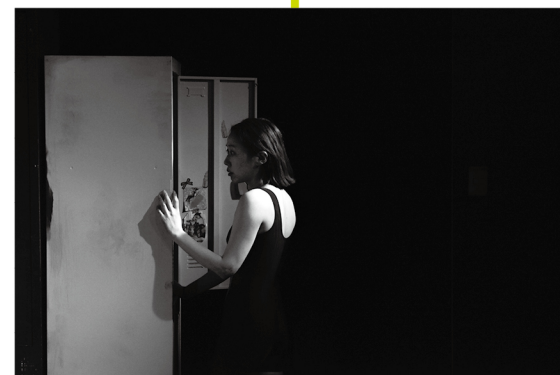


기획: 두산아트센터, 극단 해인, 프로젝트 타브(TAV)
제작: 극단 해인, 프로젝트 타브(TAV)
작·연출: 이양구
출연: 김숙자 김경희 권향자 김지원 김시영 최설화
조시현 박인영 이나리 한철훈 노유나

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마른 대지>는 미국 극작가 루비 래 슈피겔의 작품으로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를 소재로 다룬다. 사회가 원하는 소녀와는 거리가 먼 에이미는 임신 10주차다.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없는 에이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시도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결국 같은 수영부인 에스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 작품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에이미와 에스터, 두 여고생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린다. 또한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적체성, 진로고민, 자살, 따돌림, 섭식장애 등 10대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보여준다.

Dry Land by the American playwright Ruby Ray Spiegel is a play about teenage pregnancy and abortions. Far from mainstream society’s idea of an ideal girl, Amy is 10 weeks pregnant. Without access to legal abortion, Amy attempts all sorts of alternatives but fails every time. Ultimately, she turns to Esther, a peer in her swimming team for help. The play paints a vivid portrait of the two high school girls who must endure unbearably difficult concerns with their entire bodies. The play also steps away from the traditional family-oriented perspective to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faced by teens such as sexual orientation, career path, suicide, bullying, and eating disorders.



기획: 두산아트센터, 래빗홀씨어터
제작: 래빗홀씨어터
작: 루비 래 슈피겔(Ruby Rae Spiegel)
번역: 함유선
연출: 윤혜숙
출연: 김정 황은후 조의진 강혜련 정대진

화수목금 8시/토일 3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크리스천스〉는 미국 극작가 루카스 네이스가 쓴 희곡으로 2015년 오프브로드웨이 연극상 오비상(Obie Award)을 수상한 작품이다. 목사 폴은 10년만에 1,000명이 넘는 신도를 가진 큰 규모의 교회를 완성한다. 어느 날 폴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자신이 얻은 신앙적 깨달음에 대해 설교한다. 이후 견고했던 교회 안에는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종교적 믿음을 둘러싼 갈등을 소재로,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과 신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무대를 채운다. 2009년 극단 청년단을 창단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새롬이 연출한다.

Written by the American playwright Lucas Hnath, *The Christians* premiered Off-Broadway and was awarded the Obie Award in 2015. Paul is a pastor who builds up a megachurch with a congregation of over 1,000 people within 10 years. One day, Paul begins to preach about his personal spiritual enlightenment during his sermon, unlike in his other homilies of the past. Soon, what once seemed as a firm congregation begins to see fissures in their faith. Dealing with conflict over religious faith, the play asks acute questions about the foundational role of faith and convictions in people's lives. Directed by Min Saerom of Theater Troupe Cheongnyeondan, which has been robustly active since its founding in 2009.

기획: 두산아트센터, 극단 청년단
제작: 극단 청년단
작: 루카스 네이스(Lucas Hnath)
번역: 정지수
연출: 민새롬
출연: 박지일 손진환 박미현 박수민 김상보

화수목금 8시/토일 4시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0% 할인



두산갤러리

두산갤러리는 두산연강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갤러리로 2007년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첼시에 두산갤러리 뉴욕과 두산레지던시 뉴욕을 마련해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작품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DOOSAN Gallery

DOOSAN Gallery is a non-profit gallery founded in 2007 by DOOSAN Yonkang Foundation in Seoul. In 2009, DOOSAN Gallery opened DOOSAN Gallery New York and DOOSAN Residency New York in Chelsea. DOOSAN Gallery New York aspires to introduce emerging Korean artists to audiences abroad, as well as to support their artistic endeavors.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1.15 — 5.30
최윤 개인전	5.6 — 5.30
박경률 개인전	6.10 — 7.11
전시기획 공모 선정작	7.22 — 8.19
김주원 개인전	9.9 — 10.21
우정수 개인전	11.11 — 12.16

DOOSAN Gallery Seoul

DOOSAN Curator Workshop Exhibition	Choi Yun
Exhibition Selected from the Open Call: Curatorial Proposals	Park Kyung Ryul
	Kim Juwon
	Woo Jeongsu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아트랩 뉴욕 2020	1.16 — 2.15
우정수 개인전	3.5 — 3.12
박경률 개인전	9.10 — 10.17
최윤 개인전	11.5 — 12.17

DOOSAN Gallery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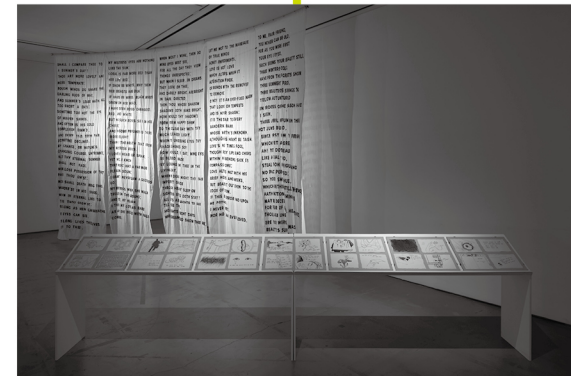
DOOSAN Art LAB New York 2020	Woo Jeongsu
	Park Kyung Ryul
	Choi Yun

두산갤러리 서울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현황을 보여주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젊은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과 무료 미술강좌인 두산아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DOOSAN Gallery Seoul supports young Korean artists by exhibiting their works; present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ontemporary art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In addition, DOOSAN Gallery Seoul offers diverse programs to expand the horizon of Korean contemporary art, including DOOSAN Curator Workshop, which fosters emerging curators, and DOOSAN Art School, which offers a series of lectures for the general public.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은 매년 3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현대미술의 이론과 현장을 함께 연구한다. 2019년에 선정된 3명의 큐레이터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은 워크샵 과정에서 작가 장지아를 초청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시선으로 작가의 작품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 연구부터 전시까지 이어지는 기획의 과정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본다.

The DOOSAN Curator Workshop selects three curators annually to study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contemporary art for one year. The three curators selected for 2019—Park Suzy, Park Jihyung, and Cheon Lim—invited the artist Chang Jia for their workshop. Each curator attempted to explore unparalleled possibilities of interpreting Chang's work through each of their unique perspectives.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peer into the curators' thoughts on their roles in the entire curating process from artist research to exhibition.



기획: 박수지 박지형 천미림
작가: 장지아

Curator: Park Suzy, Park Jihyung, and Cheon Lim
Artist: Chang Jia

최윤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2019)

5.6 — 5.30

Choi Yun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19)

최윤은 2019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작가다. 한국 사회 특유의 시간 속에서 양산된 통속적인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내포하는 집단적 믿음의 상투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가는 주로 공공장소나 대중문화를 통해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현실의 이미지를 포착, 수집, 변종하여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Selected for the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gram in 2019, Choi Yun has been interested in the demotic images mass-produced in the passage of time unique to Korean society and the clichéd faith of the masses inherent in such images. Choi mainly utilizes public space or popular culture to identify, collect, and vary the images of reality comprising the social climate in her works in video,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rt.



박경률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2019)

6.10 — 7.11

Park Kyung Ryul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19)

2019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에 선정된 박경률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읽느냐’에 대한 회화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작품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된 전통적 해석 방식에 대해 반문한다. 나아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회화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회화 속 각각의 요소가 조각적으로 구성되고 모든 요소가 동등한 상태에서 해석되도록 화면 안에서 ‘시각적 읽기 행위’를 유도한다.

Selected for the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gram in 2019, Park Kyung Ryul ask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painting on “what is painted and what is read through paintings.” Park questions the traditional method of interpreting painting, which focuses on deciphering the story created within the work. Furthermore, Park presents a new methodology for interpreting painting through intuitive images elicited from one’s own memories and experiences. Composing each of the elements in her paintings in a sculpture-like manner, Park encourages the viewers to engage in “visual reading” within her images so that all elements in the work are interpreted in equal standing.



Exhibition Selected from the Open Call: Curatorial Proposals(2019)

2019년 전시기획 공모에 선정된 목홍균 큐레이터의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의 총감독과 참여작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슈에서 출발한다. 공교롭게도 두 프로젝트의 감독은 모두 자신의 배우자 혹은 연인을 전시 참여작가로 초대했고, 이는 모 미술매체를 통해 기사화 되었다. 이번 전시는 작가와 큐레이터 간의 사적, 공적인 영역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This exhibition was curated by Mok Hong Kyun who was selected for the 2019 open call for Curatorial proposals. The exhibition began by addres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rectors of Venice Biennale and documenta(Kassel) and the respective participating artists. Coincidentally, both directors invited their romantic partners to participate as the artists in their exhibitions, which was publicized through an article of an art media outlet. This exhibition explores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artists and curators to invite the viewers to think about the role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exhibitions.



김주원은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작가다. 주변의 장면을 수집하고 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진을 새롭게 읽어내는 행위를 보여준다. 다큐멘터리적으로 수집된 현실과 개인의 사적인 기억을 뒤섞어 작품에 드러내는 김주원은 사진의 고전적인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작가의 방식대로 새롭게 선별되고 배치된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관람객이 스스로 작가의 작업 과정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

Kim Joowon is the recipient of the 10th DOOSAN Artist Award. By collecting scenes from his surroundings and expressing them through his unique perspective, Kim demonstrates a new way of reading photographs. Kim reaffirms the classical power of photography by presenting a documentary-like collection of reality blended with his personal memories. The novel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Kim's photos leave enough room for different interpretations for each viewer, encouraging them to participate in his work process.



우정수는 사회에 내재한 불안, 혼돈, 부조리한 상황들을 풍자적인 드로잉이나 대형 회화작품에 담는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사회에 대해 관찰하며 이야기한다. 작가가 생각하는 ‘관찰’은 정체를 알 수 없고 부유하고 있는 상황, 사람, 단어 등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얻고, 이미지화하고, 그려내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의심을 멈추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In his satirical drawings and massive paintings, Woo Jeongsu incorporates the uneasiness, chaos, and unreasonable situations inherent in society. Woo observes and provides commentary on the world and society he inhabits mostly through his drawings and paintings. For Woo, “to observe” means to engage in behavior to understand unidentifiable situations, people, and words that float about aimlessly. In order to enhance his understanding, Woo continues to gather data, turning them into images to be rendered into drawings or paintings. Throughout this process, Woo continues to hold onto his doubts.



두산갤러리 뉴욕은 2009년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고 뉴욕 첼시지역에 설립한 비영리 갤러리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 작가들에게 뉴욕에서의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vides emerging Korean artists with private studio space and housing for six months. Our support includes a solo exhibition opportunity and various programs that allow the artists to interact with the art scene and audiences in New York and have broadened cultural experiences.

두산아트랩은 2010년부터 진행한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2년마다 만 40세 이하의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두산아트랩을 처음으로 진행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젊은 작가를 소개하고 지원한다. <두산아트랩 뉴욕 2020>에 신재연, 천경아가 선정되었다.

Since 2010, DOOSAN Art LAB has served as a program to support those in the arts field. In its visual art category, the LAB has been biennially discovering and sponsoring new promising artists under the age of 40. This year, the program will take place at the DOOSAN Gallery New York for the first time. DOOSAN Art LAB will introduce and support young Korean expatriates working abroad. For *DOOSAN Art LAB New York 2020*, Tiffany Jaeyeon Shin and Jesse Chun have been selected.



작가: 신재연 천경아

Artists: Tiffany Jaeyeon Shin, Jesse Chun

우정수 개인전: Tit for Tat

두산아트랩 선정(2017)

3.5 — 3.12

Woo Jeongsu: Tit for Tat

DOOSAN Art LAB(2017)

우정수는 사회에 내재한 불안, 혼돈, 부조리한 상황들을 풍자적인 드로잉이나 대형 회화작품에 담는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사회에 대해 관찰하며 이야기한다. 작가가 생각하는 ‘관찰’은 정체를 알 수 없고 부유하고 있는 상황, 사람, 단어 등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얻고, 이미지화하고, 그려내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의심을 멈추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In his satirical drawings and massive paintings, Woo Jeongsu incorporates the uneasiness, chaos, and unreasonable situations inherent in society. Woo observes and provides commentary on the world and society he inhabits mostly through his drawings and paintings. For Woo, “to observe” means to engage in behavior to understand unidentifiable situations, people, and words that float about aimlessly. In order to enhance his understanding, Woo continues to gather data, turning them into images to be rendered into drawings or paintings. Throughout this process, Woo continues to hold onto his doubts.



박경률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공모 선정(2019)

9.10 — 10.17

Park Kyung Ryul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19)

2019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에 선정된 박경률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읽느냐’에 대한 회화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작품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한 전통적 해석 방식에 대해 반문한다. 나아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회화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회화 속 각각의 요소가 조각적으로 구성되고 모든 요소가 동등한 상태에서 해석되도록 화면 안에서 ‘시각적 읽기 행위’를 유도한다.

Selected for the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gram in 2019, Park Kyung Ryul ask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painting on “what is painted and what is read through paintings.” Park questions the traditional method of interpreting painting, which focuses on deciphering the story created within the work. Furthermore, Park presents a new methodology for interpreting painting through intuitive images elicited from one’s own memories and experiences. Composing each of the elements in her paintings in a sculpture-like manner, Park encourages the viewers to engage in “visual reading” within her images so that all elements in the work are interpreted in equal standing.



최윤 개인전

두산레지던시 뉴욕 공모 선정(2019)

11.5 —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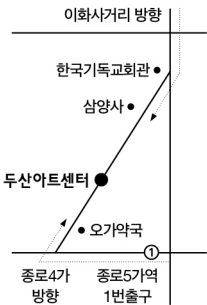
Choi Yun

DOOSAN Residency New York
Open Call(2019)

최윤은 2019년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 공모 선정작가다. 한국 사회 특유의 시간 속에서 양산된 통속적인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내포하는 집단적 믿음의 상투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가는 주로 공공장소나 대중문화를 통해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현실의 이미지를 포착, 수집, 변종하여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Selected for the DOOSAN Residency New York program in 2019, Choi Yun has been interested in the demotic images mass-produced in the passage of time unique to Korean society and the clichéd faith of the masses inherent in such images. Choi mainly utilizes public space or popular culture to identify, collect, and vary the images of reality comprising the social climate in her works in video,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rt.





1호선 종로 5가역 1번 출구,
오가약국 골목으로 30m

관람객 2시간 무료주차
(초과 시 15분당 1,000원)

tel. 02-708-5001
fax. 02-708-5010
doosanartcenter.com

SNS

facebook.com/doosanartcenter
twitter.com/DoosanArtCenter
instagram.com/doosanartcenter
youtube.com/DoosanArtCenter
podbbang.com/ch/7508

두산아트센터

DOOSAN ART CENTER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우)03129
15, Jongno 33-gil, Jongno-gu,
Seoul 03129, Korea
(+82)2-708-5001
webmaster@doosanartcenter.com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서울

DOOSAN Gallery Seoul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우)03129
15, Jongno 33-gil, Jongno-gu,
Seoul 03129, Korea
(+82)2-708-5050
doosangallery.seoul@doosan.com

두산갤러리 뉴욕

DOOSAN Gallery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1)212-242-6343/6484
doosangallery.ny@doosan.com

두산레지던시 뉴욕

DOOSAN Residency New York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1)212-242-6343/6484
doosangallery.ny@doosan.com